



재학시 주문선택 집중실습이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김혜순¹⁾ · 이여진²⁾ · 양인순³⁾

서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실무에 근거하는 교육으로(Hanley & Higgins, 2005), 간호임상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간호교육자들은 임상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모형을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Charleston & Happel, 2005). 권인수(2002)는 간호학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논문의 분석을 통해 간호학 임상실습 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현장과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많은 간호교육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간호교육을 진행해 왔다. 특이질환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환자로 연기하도록 하는 표준화 환자의 이용(유문숙, 유일영, 박연옥, 손연정, 2002; Ebbert & Connor, 2004; Foley, Nespoli & Conde, 1997), 실습지도자 활용(프리셉터쉽)(김혜순 등, 2000; 최공옥, 조현숙, 김정엽, 2002; 한신희, 이화인, 2000), 주문식 선택실습(강익화, 2004; 조영희, 2004)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임상실습방법을 적용한 간호교육자들의 주요한 목표는 결국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Hanley & Higgins, 2005).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은 기존의 전통적인 임상실습교육 방식으로 실습을 하였거나, 프리셉터와 실습을 하였거나 모두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된다(김혜순 등, 2000).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정도는 프리셉터와 함께 실습한 간호학생들이, 전통방식으로 실습한 간호학생들보다 더욱 향상되었고(김혜순 등, 2000), 프리셉터쉽과 교수효율성과의 관련성을 설명한 선행연구들(강익화, 2004; 최공옥 등, 2002)에서도 주문식 선택실습과 프리셉터쉽을 통해 간호학생의 교수효율성과 임상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주문식 선택실습은 병원현장으로부터 실습내용 및 장소를 주문받은 후 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적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임상실습지를 선택하게 하여 특정분야의 심도 있는 간호 지식과 직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간호임상교육의 한 방법으로 몇몇의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다(가천길대학 간호과, 2002).

주문식 교육과 기존의 교육방법의 차이는 대학의 학과교과과정 중심의 교육보다는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교육내용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등 교육수용자가 산업체가 되며 교육실시과정에서 산업체의 주문이나 요구를 적극 수용 반영함으로써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다(조영희, 2004). 이러한 주문식 선택실습을 통해 병원현장에서 집중실습을 받은 간호학생들은 실습 후 자가보고형 평가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4.05점, 5점 척도) 자신들의 실무능력이 향상(4.26점, 5점 척도)되었다는 확신을 나타내었다(가천길대학 간호과, 2002).

타학문에서의 주문식 선택실습은 대학 1학년때부터 차별화

주요어 : 주문선택 집중실습, 임상수행능력, 프리셉터쉽

- 1) 가천길대학 간호과 교수
- 2) 가천길대학 간호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2duwls@hanmail.net)
- 3)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간호차장

된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세분화된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학문에서는 세부적인 전공실습을 대략적으로 마치는 시점에서 실습지를 선택하여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실습으로 진행한다라는 의미에서 주문식 선택실습은 결국 주문선택 집중실습이다.

그동안의 재학시의 주문선택 집중실습의 효과 또는 프리셉터쉽에 대한 평가는 졸업하지 않은 해당 재학생들에 대한 평가(강익화, 2004; 김혜순 등, 2000; 조영희, 2004; 최공욱 등, 2002; 한신희, 이화인, 2000)가 대부분이었으며, 주문선택 집중실습을 시행받고 졸업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주문식 선택실습을 교육받은 간호사들의 임상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주문선택 집중실습의 후향적 효과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간호사의 재학시 주문선택 집중실습이 재직시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주문선택 집중실습이 졸업 후 간호사로서 재직시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재학시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재직시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연구가설

연구목적에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제1가설 : 주문선택 집중실습을 받은 간호사는 그렇지 않은 간호사보다 재직시 임상수행능력이 높을 것이다.
- 제2가설 : 재학시 임상실습 만족도는 재직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용어정의

• 주문선택 집중실습

주문식 선택실습이란 간호사가 재학시 전반적인 임상실습을 이수한 후, 학생들에게 특별관심과 적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임상실습지를 선택하게 하여 특정분야의 심도 있는 간호 지식과 직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방법(조영희, 2004)이다. 본 연구에서의 주문선택 집중실습이란 일부 대학에서 주문식 선택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임상실습으로, 병원에 의해 주문된 실습장소(내외과계 및 산소아과 병동, 중환자실 등)에서 해당병원의 프리셉터를 통하여 간호학생들이 4

주 이상의 연속된 집중실습을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 임상실습만족도

주문선택 집중실습 또는 일반적인 임상실습을 하면서 느낀 실습에 대한 정서반응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습내용 만족도, 실습병원 만족도, 취업 만족도, 간호가치관 확립의 4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임상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보여주고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태도, 간호문제 해결, 간호지식과 기술의 적용능력, 바람직한 인간관계 등의 4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학시 간호학생의 주문선택 집중실습이 재직시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후에 주문선택 집중실습의 효과를 규명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유사실험설계이다<그림 1>. 이에, 연구대상자들의 사전 동질성 검증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
대조군	없음	일반임상실습	· 임상실습 만족도 · 임상수행능력
실험군	없음	· 주문선택 집중실습	· 임상실습 만족도 · 임상수행능력

<그림 1> 연구설계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내 3차 종합병원 4곳에서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내외과, 산소아과병동 및 중환자실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였다.

실험군은 주로 G 대학 출신으로써 주문선택 집중실습을 경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임상경력이 간호사들의 의사결정과 숙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임남영과 이여진, 2004)에 따라, 대조군은 실험군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과 같은 병동의 비슷한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중 재학시 주문선택 집중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간호사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프리셉터쉽 또한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강의화, 2004; 김혜순 등, 2000; 최공옥 등, 2002)를 바탕으로, 프리셉터쉽에 의한 실험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재학시 프리셉터를 통하여 임상실습을 지도받은 경험이 있는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프리셉터는 개별지도교수의 개념으로 임상현장에서 학생들과 1:1로 만나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회환을 주는 실무간호사를 말한다. 이들의 선정기준은 3년제 이상 졸업자로 해당부서에 임상경험이 1년 이상인 일반간호사 또는 해당부서의 수간호사가 추천한 간호사, 학생지도에 관심이 있는 자로 본인이 이에 동의한 자를 선정하였다(가천길대학, 2002).

G대학 출신 간호사들이 주문선택 집중실습을 한 4개 병원에서 실험군 72명, 대조군 35명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주문선택 집중실습을 받았으나 프리셉터가 없었던 경우 19명을 실험군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주문선택 집중실습을 받지 않고 프리셉터도 없었던 경우 15명을 대조군에서 제외하여 총 107명 중 실험군 53명, 대조군 20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들의 통제를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은 4개의 병원에서 동시에 모집하였다. 이들이 근무하는 4개 병원에서는 실험군의 간호사 뿐 아니라 대조군의 간호사 모두를 일정한 서류와 면접 등의 심사에 의해 선발하였으므로 기본적인 간호능력의 차이는 없다. 또한, 두 군의 간호사들은 각 병원의 신규간호사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해당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주문선택 집중실습을 받은 실험군 간호사의 임상경력에 맞춰 대조군도 경력을 제한하여 선발하였다.

실험처치 : 주문선택 집중실습

주문식 선택실습은 전통적인 실습기간보다 좀 더 긴 교육기간을 갖고 실습교육 책임자의 지도하에 4~6주간 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간호학에 적용된 주문식 선택실습의 내용 및 취지는 병원에서 주문받은 실습지나 인력의 수만큼 간호대학에서 간호학생을 임상현장에서 배치시키고 실습지에서 프리셉터를 통해 간호학생에게 집중적인 실습교육을 받게 하여 이들이 실습병원에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가천길대학 간호과, 2002).

본 연구자의 학교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학년 2학기에 주문선택 집중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2002년 이후의 본 학교의 졸업생들은 재학시절 각 분야의 임상실습을 이수한 후, 종합적인 임상실습을 위하여 내외과계 및 산소아과병동, 중환자실 등 본인이 선택한 한 분야의 실습지에서 연속된 4주 이상의 집중실습을 마치고 병원에 취업하였다. 실험군의 재학중에 이루어진 주문선택 집중실습시에는 임상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실습지도를 담당하는 프리셉터로 활용되었고 이들에 의해 간호학생들의 간호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상실습이 실시되었다.

대조군의 간호사들은 재학시 연속된 4주 이상의 주문선택 집중실습을 하지 않았지만, 재학중 기본적인 임상실습 정규교육과정을 마쳤으므로 대조군의 처치는 일반적인 임상실습으로 간주하였다.

연구도구

- 임상실습 만족도 : 재학시 실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5점 척도의 15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가보고형 실습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조영희(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와 주문선택실습에 대한 평가보고(가천길대학, 2002)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에 의해 고안되었다. 또한, 도구의 타당성을 위해 주문식 실습을 시행하고 학생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2인의 간호학교수에 의해 문항이 중복되거나 의미가 불확실한 문항은 제거하여 처음의 18문항 중 15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 임상수행능력 : 재직시의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5점 척도의 16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가보고형 임상수행능력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이군자, 장춘자와 홍성순(2001)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2$ 였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5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주문선택 집중실습에 따른 일반적특성,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χ^2 -test, t-test, Mann-Whitney U-test로 확인하였다.
- 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증에 대한 검증은 Kolmogorov-Smirnov에 의한 정규성 검증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정규성은 <표 1>과 같다. Shapiro-

wilk 통계량에 대한 p값이 0.05보다 작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부영역인 실습내용 만족도와 취업만족도, 간호가치관 확립, 그리고 임상수행능력의 하부영역인 바람직한 태도, 간호지식과 기술의 적응능력, 바람직한 대인관계는 비모수 통계기법으로 분석하였고, 그 외의 변수들은 모수 통계기법으로 사후검증 하였다.

<표 1> 정규성 검정

구분	Z	p
임상실습만족도	.974	.299
실습내용 만족도	1.402	.039
실습병원 만족도	1.129	.156
취업 만족도	1.484	.024
간호가치관 확립	1.454	.029
임상수행능력	.824	.505
바람직한 태도	1.582	.013
간호문제 해결	1.180	.123
간호지식과 기술의 적응능력	1.374	.046
바람직한 대인관계	2.439	.000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학시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회상에 의해 측정되었으므로 연구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여성이며 학제는 3년제였다. 평균연령은 24.73±1.26세로 23세에서 30세까지였으며, 임상경력은 평균 18.43±15.50개월로 1개월에서 96개월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두 군 간의 임상경력($\chi^2=2.987$, $p=.225$), 근무 병원($\chi^2=2.525$, $p=.471$), 근무 부서($\chi^2=3.039$, $p=.604$)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재학시 임상실습 만족도는 각각 3.67±.50점, 3.51±.33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두 군 간에 차이 ($\chi^2= 1.602$, $p=.115$)는 없었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3)

구분	대조군(n=20)		실험군(n=53)		χ^2	p
	N(%)	N(%)	N(%)	N(%)		
임상경력					2.987	.225
12개월 이하	8(40.0)	21(39.6)				
12.1~24개월	4(20.0)	20(37.8)				
24.1개월 이상	8(40.0)	12(22.6)				
병원					2.525	.471
A	13(65.0)	29(54.7)				
B	1(5.0)	6(11.4)				
C	3(15.0)	4(7.5)				
D	3(15.0)	14(26.4)				
근무부서					3.039	.604
내과계병동	4(21.0)	14(27.5)				
외과계병동	3(15.8)	12(23.5)				
중환자실	6(31.6)	7(13.7)				
기타	6(31.6)	18(35.3)				
임상실습만족도	3.51±.33	3.67±.50			1.602	.115
실습내용 만족도	3.58±.35	3.69±.51				
실습병원 만족도	3.38±.59	3.67±.66			0.098	.283
취업 만족도	3.53±.53	3.59±.86				
간호가치관 확립	3.40±.50	3.69±.65				

가설검정

- 제1가설 : 주문선택 집중실습을 받은 간호사는 그렇지 않은 간호사보다 재직시 임상수행능력이 높을 것이다.
재직시 임상수행능력을 살펴보면, 주문선택 집중실습을 받은 실험군(3.74점)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3.42점)에 비해 임상수행능력의 총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3.221$, $p=.002$). 또한 4가지 하부영역에서도 모두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간호문제 해결($t=3.619$, $p=.001$), 간호지식과 기술의 적응능력($U=316.5$, $p=.007$), 바람직한 대인관계($U=339.5$, $p=.02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표 3>.
- 제2가설 : 재학시 임상실습 만족도는 재직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재학시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재직시의 임상수행능력과의 상

<표 3> 주문선택 집중실습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N=73)

구분	대조군(n=20)		실험군(n=53)		t or U	P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임상수행능력	3.42±.39	3.74±.36	3.221	.002		
바람직한 태도	3.64±.41	3.88±.44	378.5	.054		
간호문제 해결	3.06±.40	3.45±.41	3.619	.001		
간호지식과 기술의 적응능력	3.41±.50	3.80±.50	316.5	.007		
바람직한 대인관계	3.53±.48	3.80±.41	339.5	.024		

관성은 <표 4>와 같다. 대조군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군의 재학시 주문선택 집중실습 만족도는 재직시의 임상수행능력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습내용 만족도($r=.550, p=.000$), 실습병원 만족도($r=.383, p=.005$), 간호가치관 확립($r=.529, p=.000$)과 임상수행능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표 4>와 같이 실험군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의 상관성에 근거하여, 가설2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군의 임상실습 만족도의 4가지 하부영역을 독립변수로 하고 임상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군의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임상실습만족도의 하부영역 중 실습내용 만족도와 간호가치관 확립이 유의한 변수로 선택되었다. 이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4.781, p=.000$), 임상수행능력의 37.2%를 설명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표 5>.

<표 4>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

	대조군(n=20)	실험군(n=53)
	임상수행능력 r(p)	임상수행능력 r(p)
실습내용 만족도	.359(.120)	.550(.000)
실습병원 만족도	-.080(.739)	.383(.005)
취업 만족도	-.081(.734)	.184(.187)
간호가치관 확립	.303(.194)	.529(.000)

논 의

주문선택 집중실습과 임상수행능력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정적이다(김현정 등, 1999; 박경숙, 황윤영과 최은희, 2003). 이규은, 하나선과 길숙영(2000)의 연구에서도 690명의 3,4년제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 만족한다 26.6%, 그저 그렇다 59.5% 불만족한다 13.6%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조영희(2004)는 실습교육 책임자의 현장지도 하에 연속되는 4주간의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종전의 실습에 비해 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최공욱 등(2002)의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임상실습기간이 2주였으며, 강익화(2004)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기간이 6주로

실습기간은 달랐으나 두 연구 모두 프리셉터를 활용하였다. 두 연구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교수효율성(5점 척도)을 측정하였고 각각 3.46점(최공욱 등, 2002)과 3.68점(강익화, 2004)을 나타내어 실습기간이 길고 연속적이며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강익화(2004)의 연구대상자에서 점수가 더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두 군 모두 프리셉터를 활용하여 임상실습지도를 받았으나 연속된 4주이상의 집중실습을 받은 실험군(3.74±.36점)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3.42±.39점)에 비해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다. 교수효율성은 실습교육의 목적을 달성한 정도를 말하는데,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는 것이 실습교육의 목적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임상수행능력과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김혜순 등(2000)도 프리셉터를 활용한 2주간의 임상실습이 프리셉터를 활용하지 않은 실습군에 비해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졌고, 특히 임상수행능력 중 실험군의 교육/협력관계와 간호기술이 처치 후 더욱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김혜순 등, 2000; 최공욱 등, 2002)에서는 프리셉터를 이용한 실험군에서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 뿐 아니라 대조군도 프리셉터를 통해 실습지도를 받았다는 것과 비교해볼 때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지만은 않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조군은 프리셉터를 활용하였으나, 집중적이고 연속적인 실습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또한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한 시기는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처치 후 즉시가 아니고 1~3년이 지나는 후향적 시점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4주이상의 주문선택 집중실습을 수행한 실험군의 간호사들에게 재직시의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문제 해결, 지식과 기술의 적용능력, 대인관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리셉터를 활용한 실습은 임상실습에 만족감도 높고 임상수행능력도 높으나, 프리셉터를 활용하면서도 연속적이며 4주 이상의 집중적인 실습이 더해지면 간호사가 되어서 임상수행능력이 그렇지 않은 간호사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재학시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재직시의 임상수행능력은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처치 후 상황이므로 <표 4>에서 제시하는

<표 5> 임상실습 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단계	종속변수	BETA	B	S.E	t	p	R ²	F	p
	상수		2.128	.304	7.008	.000			
1	실습내용 만족도	.368	.259	.096	2.700	.009	.372	14.781	.000
2	간호가치관 확립	.320	.177	.075	2.350	.023			

상관관계를 통해 실험군의 임상실습 만족도(재학시)와 임상수행능력(재직시)간에 높은 인과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신희와 이화인(2000)은 프리셉터를 활용한 임상실습이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과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Scheetz(강익화, 2004에 인용됨)의 연구에서도 프리셉터 활용이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켰음을 보고하였다. 최공옥 등(2002)의 연구에서도 프리셉터 또는 수간호사를 활용한 2주간의 실습교육을 통해 임상실습 만족도와 교수효율성이 높은 상관성($r=.603, p=.000$)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임상수행능력의 측정시기가 처치 후 측시가 아니므로 선행연구와의 단편적인 비교는 어렵다.

이규은 등(2000)의 연구대상자들 중 임상실습에 만족한다고 답한 학생들(26.6%)의 임상수행능력은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두 군 모두 재학시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았고 차이가 없었으나, 간호사로 재직중의 임상수행능력에는 차이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은 모든 간호사 및 간호교육자의 목표이므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큰 의미가 있겠다.

선행연구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이나 간호의사결정과 같이 임상상황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두 가지 큰 논란이 있다. 지식(김혜숙, 1995; Tanner et al., 1987)과 임상경력(이여진, 2002; Tabak, Bar-Tal, Cohen-Mansfield, 1996; Westfall, Tanner, Putzier, Padrick, 1986)이 그것이다. 먼저, 지식의 측면에서 3,4년제의 차이가 없다(이규은 등, 2000; 이여진, 2002)는 연구결과도 있으나 3,4년제의 차이가 있다(김혜숙, 1995)는 연구도 있다. 이규은 등(2000)의 연구대상자는 학생이었으며, 이여진(2002)과 김혜숙(1995)의 연구는 간호사였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동일학제(3년제)였다. 또한, 임상경력에 있어,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게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에 있어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 두 가지 변수 모두 논란에서 좀 더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게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주문선택 집중실습이며 주문선택 집중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의 37.2%를 설명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실험군의 임상수행능력과의 의미있는 상관성은 각 분야의 임상실습을 모두 경험하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4주 이상의 연속적인 집중실습을 통해 기존의 실습에서 주로 행하던 관찰위주의 실습에서 탈피하여 프리셉터를 통해 실무위주의 실제적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재학시의 집중적인 실습경험은 간호사가 되어서도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주문선택 집중실습을 통한 임상실습 만족도 중 실습

내용 만족도와 간호가치관의 확립이 재직시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군의 대상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실습경험을 통해 실습 내용에 만족해하며, 자신의 실무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자신감을 불러 넣어주고(가천길대학 간호과, 2002) 이러한 자기확신이 간호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 73명(실험군 53명, 대조군 20명)을 대상으로 재학시 주문선택 집중실습이 재직시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문선택 집중실습을 경험한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재직시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t=3.221, p=.002$).
- 재학시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재직시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며($F=14.781, p=.000$),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나타낸 것은 실습내용 만족도와 간호가치관 확립이었으며, 이는 임상수행능력의 37.2%를 설명하였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간호임상교육보다는 연구대상자 본인들이 선택한 분야에서 프리셉터에 의해 지도를 받고 연속적인 기간동안 집중적인 임상실습을 한 경험이 졸업 후 간호사로 재직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문선택 집중실습은 간호교육자와 간호학생, 실습병원에서 기대하고 있는 효율적인 간호임상교육의 한 방법이므로, 간호학생들에게 주문선택 집중실습의 확대실시는 졸업 후 임상적응에 어려운 신규간호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가천길대학 간호과 (2002). 주문식 교육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강익화 (2004). 실습지도자를 활용한 주문식 실습교육의 교수 효율성. *간호행정학회지*, 10(1), 11-23.
- 권인수 (2002). *간호학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연구논문 분석*, 32(5), 706-715.
- 김혜숙, 김영숙, 이군자, 임영숙, 유재희, 장춘자, 최공옥, 김명순, 강익화, 조현숙, 윤혜상, 조원순, 이은자, 김정엽, 김병연, 허경희 (2000). 실습지도자활용(preceptorship)이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논문집*, 1(3), 551-561.
- 김혜숙 (1995). *신규간호사의 간호행위 수행정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현정, 성정은, 신정아, 이지연, 임수현, 김태연, 신경림 (1999). *간호대학생들의 첫 임상실습에 관한 체험연구*. 이

- 화간호학회지, 32, 98-111.
- 박경숙, 황윤영, 최은희 (2003).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5(3), 373-382.
- 유문숙, 유일영, 박연옥, 손연정 (2002). 기본간호학 실습교육 방법에 따른 학생들의 간호수행능력의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32(6), 327-335.
- 이군자, 장춘자, 홍성순 (2001). 임상 간호실습교육 평가도구 개발. *간호행정학회지*, 7(3), 418-430.
- 이규은, 하나선, 길숙영 (2000). 간호대학생의 자기표출능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0(3), 571-583.
- 이여진 (2002). 임상간호사의 의사결정에 관한 다변수간의 인과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임난영, 이여진 (2004). 임상경력에 따른 간호사의 의사결정 참여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4(2), 271-278.
- 조영희 (2004). 주문식 임상간호실습에 관한 평가연구. 가천의과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천.
- 최공욱, 조현숙, 김정엽 (2002). 간호학생과 실습지도자간의 실습지도자 활용의 교수효율성 평가비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2), 304-313.
- 한신희, 이화인 (2000).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실습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자기효능과의 상관연구. *경인논집*, 7(1), 191-197.
- Charleston, R., Happel, B. (2005). Psychiatric nurses and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preceptorship in the mental health setting. *Int J Psychiatr Nurs Res.*, 10(3), 1166-78.
- Ebbert, D. W., Connor, H. (2004). Standardized patient experiences: evaluation of clinical performance and nurse practitioner student satisfaction. *Nurs Educ Perspect.*, 25(1), 12-5.
- Foley, M. E., Nespoli, G., Conde, E. (1997). Using Standardized Patients and Standardized Physicians to Improve Patient Care Quality.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28(5), 198-204.
- Hanley, E., Higgins, A. (2005a). Assessment of clinical practice in intensive care: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nsive Crit Care Nurs*, 21(5), 268-75.
- Tabak, N., Bar-Tal, Y., Cohen-Mansfield, J. (1996). Clinical Decision Making of Experienced and Novice Nurse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8(5), 534-547.
- Tanner, C. A., Padrick, K. P., Westfall, U. E., Putzier, D. J. (1987). Diagnostic Reasoning Strategie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Nursing Research*, 36(6), 358-363.
- Westfall, U. E., Tanner, C. A., Putzier, D. J., Padrick, K. P. (1986). Activating Clinical Inference: a Component of Diagnostic Reasoning in Nursing. *Research in Nursing & Health*, 9(4), 269-277.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in School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e

Kim, Hye-Soon¹⁾ · Yi, Yeo-Jin²⁾ · Yang, In-Soon³⁾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chon Gil College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chon Gil College

3) Director, Department of Nursing, Gachon Medical School Gil Medical Cent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in school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e. **Method:** This study used a quasi experimental post-test design. Data were collected after post-test from April 1, 2005 to May 30, 2005 and from 73 clinical nurses(53 experimental group, 20 control group) who work for 4 General hospital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1.5 with χ^2 -test, t-test, Mann-Whitney U-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reatment : 4-week consecutive clinical nursing education with preceptor in schooling, and the control group participated in treatment : traditional clinical nursing education with preceptor in schooling. **Results:** Clinical competenc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t=3.221$, $p=.002$). Clinical competence in nurse is effected by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schooling in experimental group($F=14.781$, $p=.000$). **Conclusion:** 4-week consecutive clinical nursing education with preceptor has an effect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e. Therefore we should spread and

reinforce the 4-week consecutive clinical nursing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clinical competence of nurse.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Clinical competence, Preceptorship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i, Yeo-Jin(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chon Gil College

534-2, Yunsu dong, Yunsu Gu, Incheon 406-799, Korea

Tel: +82-32-820-4217 Fax: +82-32-820-4201 E-mail: 2duvls@hanmail.net